

# 2017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 Program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민지*	학번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7. 6. 25. ~ 7. 16

##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캘리포니아 레딩에 위치해있으며 학교 주변이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까운 마트나 식당 등, 차로 10분정도 걸립니다. 차가 없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기숙사 시설과 학교 시설은 좋은 편입니다. 한국과 별 차이 없고 온수도 잘 나옵니다. 학교가 넓어서 건물간의 거리가 멀고, 흡연구역은 학교에 딱 한군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음식이 짜고 기름지니까 한국에서 라면이라도 사가는 것이 좋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은 전반적으로 여유롭습니다. 외국인 짝이 정해지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짝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과제는 없습니다. 수업준비도 몸만 가면 됩니다. 컴퓨터실에서 학교 컴퓨터로 수업하고, 웹사이트 디자인수업은 자신이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디자인하는 수업은 아닙니다. 웹사이트 디자인보다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꾸미는 것처럼 레이아웃이 정해져있습니다.</p>
필드트립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샤스타 동굴은 내부가 좁습니다. 계단이 많고 짧게 끝납니다. 샤스타 댐은 사실 볼 게 많이 없습니다. 터틀 베이는 기념품점에 엽서가 예뻐니다 땡벌이니 선글라스 또는 모자를 챙기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냥 현지 친구들의 차를 얻어타고 야경으로 보는 것이 더 재밌습니다.</p>

	<p>burney 폭포는 가는 데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물이 차갑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은 기념품을 사지 않는다면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사실 기념품도 딱히 살게 없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습니다.</p> <p>샌프란시스코 여행에서도 쇼핑거리에서 쇼핑할 시간을 주지 않아서 크게 돈 쓸 일이 없습니다. 음식도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쿠폰 북에서 할인 또는 공짜로 먹을 수 있습니다.</p> <p>치코 주립대학이나 샤스타 의대건학은 외국 대학 환경을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추가비용은 없습니다.</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날씨가 매우 건조하고 덥지만, 한국보다 낫습니다. 습하지 않고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고, 화장 무너짐이 한국보다 훨씬 덜합니다. 건성이신 분들 미스트를 가져가야합니다. 날씨가 습하지 않으니 고데기도 유지 잘됩니다. 비는 절대 안 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매우 안전합니다. 밤에도 현지 학생들과 같이 다니시면 안전합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input checked="" type="radio"/> ) 홈스테이 ( <input type="radio"/> ) 외부 숙소( <input type="radio"/> ) 기타( <input type="radio"/> )</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기숙사 시설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분위기나 규칙 등은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p>
식사	<p>학교식당 ( <input checked="" type="radio"/> ) 외부식당 ( <input type="radio"/> ) 기타 ( <input type="radio"/> )</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학교 식당은 과일이 맛있고 전반적으로 짭니다. 가끔 밥이 나오는데 한국 밥이랑 달리 푸석거리는 밥입니다. 외부 식당도 햄버거 피자 브리토 같은 식당인데 짜고 기름져서 고지혈증에 걸릴 것 같습니다. 학교 근처 (차로 10분) 에 베트남 음식점이 있습니다. 쌀국수 드세요 8달러 정도 합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현지학생들의 차를 얻어 타시면 됩니다.</p> <p>주중에 마트 가는 버스가 있긴 있던데 타본 적이 없어 모릅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지출 금액과 현지에서 추가 지출한 총 지출내역을 써 주세요.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보험료	31,300	출국 전 사전 납부
쇼핑비용	500,000	세포라, 마트 등 쇼핑

####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주세요.

기숙사에서 수건을 주는데 손수건사이즈 하나, 평균크기 수건하나, 비치타올 크기 하나입니다. 집에서 수건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옷걸이도 가져가서 버리고 오세요.

실내용 슬리퍼 있으면 편합니다.

흡연자라면 담배 면세점에서 사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에서 담배 비싸고 한국 보다 적게 들어있습니다. 파는 곳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도 비쌉니다.

선크림이 많이 필요합니다. 날벌레는 한국보다 없습니다. 모기도 없습니다.

미니사이즈 지우개만한 개구리가 많습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수업보다는 필드트립과 현지 학생들과 노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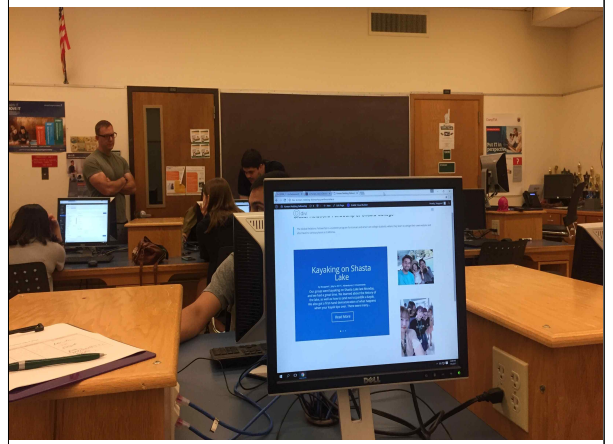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들 좋은 사람들이고 재미있었습니다.

영어가 부족해도 현지 친구들은 이해해줍니다. 미국 문화와 언어를 배워가며 영어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외국 친구들에게 불고기를 만들어줌



수업시간



4 of July



아침 급식  
요거트와 시리얼이 항상 있음



카야킹



외국 친구에게 불닭 먹이기  
(아시안 식료품점에 팝니다. 근데  
한국보다 훨씬 비싸니까 그냥 한국에서  
챙겨가세요)